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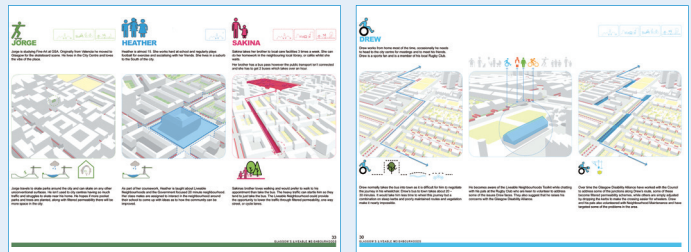
글래스고, '20분 도시' 향한 도시 재편 본격화

<https://www.glasgow.gov.uk/index.aspx?articleid=27947>
<https://www.glasgow.gov.uk/index.aspx?articleid=27062>
<https://www.glasgow.gov.uk/CHttpHandler.ashx?id=53409&p=0>

영국 글래스고시가 '20분 도시'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 개선안 도출 등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. 글래스고는 작년 6월 'Liveable Neighbourhoods' 사업을 발표하고 10년간 시 전역의 가로 설계와 도시공간 활용 방향을 개선해 ▲20분 도시 ▲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▲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. 이때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▲공공서비스 주요 제공처로서 지역주민센터의 활용 및 접근성 제고 ▲보행, 자전거 이동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 ▲사람 중심의 가로 설계 등을 설정한바 있다.

글래스고 전역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2개 대상지*에 대해 개편 디자인안을 구체화하였다고 시의회는 전하였다. 개편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2개 대상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, 특히 시는 주민들이 지역을 이동하며 겪는 문제를 듣는 것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. 개선안에는 교통 정온화와 보행로 개선, 벤치 등 공공시설 설치, 파클렛(parklet) 도입, 교차로 재설계, 미이용 토지 재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
시는 이번 개편안이 전체 사업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이자 예산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모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시의회에서 지속가능성 및 탄소감축(Sustainability and Carbon Reduction)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애나 리처드슨(Anna Richardson) 의원은 "각 지역에 대한 개선안은 작은 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"고 설명하면서 "크게 보면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 될 것"이라고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였다.



'Liveable Neighbourhoods' 툴킷

출처: Glasgow City Council. (2021.6.) Glasgows Liveable Neighbourhoods Toolkit.

* Ruchill-Cowlares 지역, Langside-Toryglen 지역